

<지난주 말씀&서론>

▶우리는 세상에 나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세상 살리기 위함이지 세상과 더불어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다시 한번 여러분이 아, 나도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구나, 어저저 있는 것 같지만 살리도록 파송된 사람이구나, 이 사실 붙잡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고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가진 자에게, 갈보리산의 언약으로 단단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봐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봐도 깨달을 수 없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나? 오직 그리스도로 답 단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붙잡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가 떠올랐느냐, 미래적인 말씀이지만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이지만 미래를 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미래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는 것은 미래를 오늘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언약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곱 나팔이 불고 나서 완성되는 그 날에는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주 붙잡아야 할 언약은 내가 오늘 세상 나라 속에 있다면 보옵 소스로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 나라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임을 축원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와 왕 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분이 누구입니까?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우리의 주인?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우리의 주인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옛적에도 계시었다, 이 말은 영세전에 계시었다는 것입니다. 그 분이 지금도 계시었다, 이 말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재림주, 심판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분이 미래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그 분이 왕이 되고 염려할 것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옛적에도 계시었다는 것은 영세전에 계시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시었다. 그 분이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될 분입니다.

▶서론에서 답을 다 내셔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받았습시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이 다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의 완전성,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계획이 지체하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내가 맹세하고 지체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답안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답했다는 것은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다 가옵시다.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 증인들에게 분명히 고난이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순교하며, 반드시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옵니다. 그 영광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일이 선포되어지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답이 나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반드시 오늘 내가 붙잡은 비밀로부터 나오고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양되는 그 날이 오고 있습니다. 벌써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표가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간과하고 놓치는 것 같아요.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내 인생도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구도, 시대도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단 자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단단 자들입니다. 단단 자는 말씀을 먹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입에는 꿀같이 달고 배에는 쓰다듬고 있습니다. 나를 치유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뭐로 여러분은 치유를 하려고 하나?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비밀을 안다면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일주일간 먹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입니다. 이게 맞다면 여러분은 일주일간 강단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만 사는데 그 먹을 때 내 입에 꿀이 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달지 않다면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내 입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이 은혜가 안돼요, 이 말은 내가 은혜를 못받고 있는 상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번째 서론으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정말 절대대대가는 맞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있는 나는 맞느냐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겨둔 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 남겨둔 자가 맞다면 여러분은 남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재생산이 일어나는 순례자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열매를 맺는 정복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직장에 나를 파송했구나,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전도자를 돕고 동역하는 파수꾼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지역을 살리는 정탐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드는 사령관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이 중 한가지에 답을 냈다면 그 사람이 절대대대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탐꾼으로, 정복자로, 순례자로, 남은 자로, 파송된 자로, 기를 든 자로 살겠습니까? 그걸 찾는 사람을 보고 절대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대대의 기준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깃발을 들 수 있는 사람이나, 이게 바로 절대대대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기준을 가지고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명 한명 다 절대대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각각이 한 지역에 한 망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서론 세 번째로, 답안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답안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미션, 하나님 나라에 답안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에 대한 오직 증인으로 답이 나서야 합니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갈보리산 언약으로 끝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과거, 오늘, 미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미래 어떡하지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그것은 미래로 연결되어집니다. 과거는 망하는 미래였지만 내가 오늘 내가 누구인지 찾고 오직으로 답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되는 미래,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미래를 살게 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 병들어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서 봉대를 감고 돌무덤에 갇혀 있는 인생입니다. 공공 묶여 있는, 절대불가능한 인생입니다. 이걸 지극정성으로 스스로 살 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게 종교입니다. 속이는 것이죠.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난리를 쳐도 절대불가능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절대불가능한, 망하는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죽어 썩어 냄새나는 인생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자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 걸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미션을 주셨습니다. 저 사람을 묶인 데서 풀어서 다니게 하라. 우리는 묶인 데서 풀려나와서 참 자유를 가지고 가야 할 미션이 있습니다.

<본론>

1. 측량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계 11:1)

측량의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측량의 비밀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유하고 소유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측량하라는 의미는 구별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나를 측량하는구나, 측량 속에 들어있는 나구나, 이 말은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보호구역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보호 대상자요,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측량 속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계11:2)

참 놀라운 일입니다. 측량한 하나님의 백성 외에 밖에 두 이방인들을 통해 측량받은 자들이 고난받는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방인을 통해 마흔두 달이라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에 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허락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짧은 배옷을 입고 천이백육십 일을 예언하리라(계11:3)

마흔 두 달이 천이백육십일이입니다. 장장 3년 반입니다. 7년의 환란 때 3년 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 다가올 일을 생각한다면 오늘 나는 누구인지 빨리 찾아야 합니다. 오늘이 미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앙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선 절대로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계11:4)

여기 두 증인을 스가라 말씀으로 뭐라고 하나면, 성령과 말씀

의 비밀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증인이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입니다. 스가랴 4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두 사람을 말하고 있고, 이 촛대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령과 말씀, 이 두 증인이 그 어려운 마흔 두달 가운데 일어나서 증거하고 말씀하시는 사실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달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리라(계11:5-6)

말하고 있습니까? 과거를 놓고 볼 때는 엘리야와 모세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지요,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 이 사건들은 출애굽 때 일어난 사건들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란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데 구약에 엘리야의 역사, 모세의 역사가 그 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지요.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증인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복음 증거하는 일은 계속되어지는구나.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온다고 해서 복음 증거가 멈추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2. 핍박과 순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데(계11:7)

두 증인이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 말은 적그리스도로부터 죽는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나요? 간혀 있던 흑암의 세력이, 이 짐승들이 무저갱의 문이 열리면서 올라와서 두 증인을 죽이는 것입니다. 순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하신 곳이라(계11:8)

소돔은 타락의 성, 애굽은 억압의 나라였습니다. 그런 타락과 애굽의 성, 그들의 시체가 길바닥에 널부러진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를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계11:9-10)

무슨 말입니까? 악이 창궐했던 그 시대, 악이 번창했던 그 현장 속에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증인이 순교를 당하니 까 이방인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측량 밖에 있는 자들이 측량 안에 있는 자들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온다는 말입니다. 아니,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요? 나는 오직 천도와 선교만 하고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과 핍박이 오고 죽음과 순교가 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 생각 잘해야 합니다.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영광 속에 들어가는구나.

▶삼 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계11:11)

죽음이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는 부활의 시기입니다.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미래를 놓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괜찮아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미래적인 말씀이지만 오늘 내게 생기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 생기가 들어오는 것이 7만대, 7여정, 70이정표의 기도입니다. 버려졌던 시체들에게 생기가 들어와서 일어납니다. 삼일 반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계11:12)

순교를 하고 죽어서 부활이 되어지면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로 간다는 사실을 원수도 보고 이방인도 본다는 것입니다. 이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그 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칠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계11:13)

이 칠천이라는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고 완전수입니다. 거기에 이때까지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구원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포도원의 비유가 있죠. 아침에 부른 사람, 오후에 부른 사람, 해 지기 전 마지막 한시가 전에 부르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하셔야 해요. 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구나.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데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니(계11:14-15)

일곱째 화에 나팔이 불리는 장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사실, 통치권이 이양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응답의 주역이고 이 자리에 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귀찮습니까? 이게 귀찮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핍박과 환란을 무서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세세토록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이십사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계11:16-17)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 나의 왕 그리스도입니다. 그 나라가 완성되는 시간이 오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날이 다가옵니다. 미래를 보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계11:18-19)

말 그대로 악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심판대에서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에 대한 보상이 옵니다. 주의 이

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이 임합니다. 난 안 받을래, 그건 선택의 자유입니다. 두가지가 갈라집니다. 측량 안에 든 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고 영광 앞에 선 자에게 상이 주어지지만, 측량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측량받은 인생으로 남은 인생을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죽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향해서 가다가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죽음이 와도 괜찮아야 합니다. 미래를 말씀으로 봤기 때문에. 도망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 믿는다고 아프리카에서 공개처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닷가에서 죄수복을 입혀놓고 목을 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반항을 안해요. 어디서는 사람들을 화형을 하더라구요. 그 속에서 그 뜨거움을 감당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경우도 있구나. 계시록 말씀을 통해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오는 부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는 그 중심 속에 우리가 있게 되어집니다.

《결론》

▶우리가 붙잡은 그리스도는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주로 서실 분입니다.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실 분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양되어지는 그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통치권이 이양되면 세세토록 왕노릇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분리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시간이 세세토록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내가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는 이런 그리스도구나. 미래 걱정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면 WIO하시길 바랍니다. 원네스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놓고 포럼다가 결단하는 것이 원네스입니다. 반대가 있으면 안됩니다. 전부 오케이 할 때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생을 드려도 괜찮습니다. 숫자가 적다고, 오히려 괜찮습니다. 적은 숫자일지라도 원네스만 되어진다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개인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으로 절대망대가 되면 됩니다. 이 언약으로 한주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빛교회
ζωη φως ἐκκλησία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0-147호

담당목사 : 곽동호

전 화 : 010-5205-4079

E - mail : dhkwak0224@hanmail.net

인생복음상담 : 070-4406-4079